

측백나무

LANDSCAPING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측백나무과
- ▶ 학명 : *Thuja orientalis*
- ▶ 영명 : Oriental Arborvitae, Chinese Arborvitae
- ▶ 한명 : 側柏
- ▶ 일명 : このてかしわ



▲ 측백나무 열매



측백나무는 최근 공원이나 정원에 즐겨 심어 가꾸어 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귀한 대우를 받았던 나무 중 하나였다.

송백(松柏)이라 하여 소나무를 백가지 나무 중에서 으뜸으로 삼아 공(公)이라고 하고 측백나무는 백(伯)이라 하여 소나무 다음가는 것으로 비유할 만큼 사랑받았다. 주나라 때에는 묘지에 심는 다섯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군왕의 능에는 소나무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왕족의 능에는 측백나무를 심도록 규정하여 성역에 심어지는 나무였을 뿐만 아니라 우화등선(羽化登仙)의 불로장생이라는 전설적인 이야기 거리로도 사찰 등에도 즐겨 심어지며 귀중시 되었다. 앞이 옆을 향해 누워 자라므로 측백이라 이름 붙여졌다.

1. 생태적 특성

한국, 만주, 일본, 중국북부가 원산지이며 충북단양, 대구의 석회암지대, 표고 200~600m에서 자생하는 상록침엽교목이다. 수고가 25m 흉고직경은 1m까지 자랄 수 있지만 흔히 관목성으로 자란다. 수형은 원추형이고 다른 침엽수에 비해



▲ 측백나무(경복궁)



▲ 측백나무

질감이 고운편이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자랄 수 있으며 석회암지대의 지표식생이다.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더 좋은 수형과 잎을 가진다.

양지에서 잘 자라며 추위와 대기오염에 강하나 한건풍에는 약하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나 양토가 적지이다.

2. 형태적 특성

상록성이고 잎은 비늘모양으로 뾰족하고 길이 2.5mm 나비 2mm이며 양면이 모두 녹색이거나 연한 황록색으로 약간의 백색점이 있다. 한 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피며 암꽃은 원형으로 지름이 2mm인 연한 홍갈색이고 수꽃은 난형으로 연한갈색이다. 전년에 자란 가지 끝에 한 개씩 달리며 4월에 개화 한다. 열매는 원형에 가까운 난형으로 길이가 1.5~2cm이고 8개의 실편으로 구성되고 9월에 흑갈색으로 익는다. 종자는 한 열매에 보통 2~6개가 들어 있으며 난형이다. 큰가지는 적갈색이고 작은가지는 녹색이며 큰나무의 수피는 회갈색이다. 밑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 빗자루처럼 자라는 것을 천지백 (for. *Sieboldii* Rehder)라 한다. 일반인이 화백과 편백, 측백을 쉽게 구별하려면 잎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잎의 뒷면의 백색기공조선이 W자형이면 화백이고, Y자이면 편백, 양편이 모두 녹색이고 잎이 편평하게 넓게 퍼져서 자라면 측백으로 구별하면 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어릴 때에는 수형이 원추형이나 자라면서 점차 원형으로 되어간다. 잎이 치밀한 좋은 수형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로 독립수 또는 차폐용 생울타리로 이용된다. 요즘은 테마공원의 미로정원에 식재되기도 한다. 때로는 정원의 토피아 리용으로도 사용된다. 서양측백에 비해서는 수분이 덜 요구되나 잎이 작고 가지가 가늘어서 눈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로 잘되며, 9월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한 뒤 건조저장하거나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파종하는데 발아율이 높다. 삼목은 봄에 휴면지 삼목을 하고 여름에 반숙지 삼목을 하되 삼수의 길이는 가지의 선단부에 있어서 약 15cm가 되도록 한다. 특별한 개체를 번식 시키고자 할 때는 2년생 실생묘를 대목으로 하여 복점을 실시한다.

5. 그 밖의 용도

측백나무는 수없는 고사전설 탓인지 영약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오래도록 전래된 민속약으로 잎은 고혈압 치료제 지혈제로 사용한다. 생잎을 술에 넣고 불을 지피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식후에 복용하면 부인병과 토혈, 장출혈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며 씨는 백자인이라 하여 장복하면 허기를 잊게 하는 지양강장제로서 중히 여겼다. 또한 백자인으로 술을 빚었는데 우리나라 과실주로는 가장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약술에 속한다. 